

체화가 무용수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고 현 정*

목 차

- | | |
|------------------|---------------------|
| I. 서론 | 2. 몸과 행동을 통한 감정의 단계 |
| II. 체화와 인지 | IV. 무용수의 체화적 인지 |
| 1. 몸과 체화 | 1. 무용수 내적 경험의 의미 |
| 2. 체화된 인지 | 2. 무용수의 몸과 움직임의 느낌 |
| III. 감정과 느낌 | V. 결론 |
| 1. 감정과 느낌의 관계 구조 | 참고문헌 |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embodiment on dancer's cognition

Go, Hyeon-jeong ·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is an exploration of a dancer's embodied cognition and the extended mind. It is based on embodie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 that knowing is through integrated body and mind. It also assumes that embodied knowledge can make compact networks with the environment to affect the world and are affected by the world. Dance relies on capability of execution to adapt the given environment smoothly as well as dancer's accumulated long term experience through the movement technique, which interacts with continuously emerged particular conditions of unspecific background, because it acquires mainly constantly controlled dancer's movement. Moreover, as a dancer, there is a special state that can not be described or defined with words and it is argued that this inner emotion contains more than just outer movements of the dancer. This study interrogates what is integration of body and mind, and how the dancer knows

* 한양대학교 강사

논문투고일: 2014. 04. 20. 심사일: 2014. 05. 20. 게재확정일: 2014. 06. 09.

the feeling of integration, and how the integration emerges and develops to demonstrate dancer's embodied cognition.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relation with dancer's body and cognition by analysing how dancer feels the emotion through the dancer's body and how dancer's inner cognition process develops. This study considers that

Firstly, human cognition realises and adapts and being engraved the world through their body and it discusses embodied cognition through integration of brain, body and environment.

Secondly, it analyses the notion of bodily sense and action affects the mind cognitive function in depth. Therefore, it demonstrates Norris' notion of emotion, which links between body and mind, and feeling, which transforms acquired knowledge into understanding through Damasio's neurological approach to explore the developmental stage of emotion.

Finally, it explores a dancer's inner experience through Norris' notion of developmental stage to get an insight of the dancer's inner cognition.

key words: cognition, embodiment, emotion, feeling, movement, dancer's inner experience

주요어: 인지, 체화, 감정, 느낌, 움직임, 무용수의 내적 경험

I . 서론

M. Johnson(1987)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서양 문화에서는 인간의 전제조건을 몸과 마음, 몸과 정신, 몸과 영혼으로 나누어 논의하면서 그들의 진정한 자신은 그들 자신의 몸에 올라가며 쓰여 있다는 플라톤의 개념으로 단언한다. 만약 우리에게 진실 된 자아가 마음에 있는지 아니면 몸에 있는지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몸의 자극이나 충동은 마치 인류의 수치스러운 유물처럼 내부에 숨겨져 있는데 이는 Block and Kissell(2001)이 주장하는 것처럼 높은 수준의 능력인 언어적 사고의 과정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몸과 마음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Descartes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A. Damasio(1999)의 감정과 느낌을 분류 분석하는 신경과학적 접근을 통해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논의하고 R. Sachs Norris(2002; 2005; 2012)의 종교적 체화과정과 함께 감정의 발달단계의 철학적 접근과 이를 통해 연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고 더하여 무용수 내적 인지 과정의 분석을 시도한다.

무용수로써 본인은 무용 공연을 할 때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어떠한 '상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긴 세월동안의 무용 연습 후에 가지는 이러한 내적 감정은 무용수의 단지 외적 모습보다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연구의 선행연구로 S. Fraleigh(1987)의 「Dance and the Lived Body」, J. Gil(2006)의 "Paradoxical Body", M. C.

Beardsly(1982)의 “What is going on in a Dance” 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몸과 마음의 통합된 느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몸과 마음이, 또한 그 통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무용수의 내적 인지가 어떻게 발달 하는지 그리고 그 느낌을 무용수가 어떻게 아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내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무용수의 인지를 감정과 체화과정을 통하여 연구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무용수가 움직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형상과 함께 더 많은 것을 포함하는 내적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용수를 대상으로 무용수가 몸, 머리, 정신이 하나가 되어 어떻게 몸으로 감정을 느끼며 또 어떠한 과정의 내적 인지를 가지는지 분석하여 무용수의 몸과 인지의 관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인간의 지식이 의미(구조)를 만들며 그것이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논리에서 무용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무용과 같이 연속적으로 통제되어지는 몸의 움직임은 끝없이 나타나는 세부조건들을 통해 불특정한 배경과 상호 작용하고 습득되어진 무용수의 움직임 기술과 또는 주어진 환경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수행능력의 활용에 의존적이다. 그러므로 무용에서 무용수의 몸과 정신 그리고 움직임이 특별한 관계를 가지며 인지 과정을 가짐을 인식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째로 뇌, 몸, 환경의 통합체 상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중심의 체화된 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인간의 인지가 몸으로 환경에 구현되고 적응되어 내재됨을 숙고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없는 감정과 내적 경험에 관한 연구에 정당성을 논의하고, 환경과 움직임의 상호보완적 작용으로 체화된 인지를 논의하였다. 둘째로 몸의 감각이나 행동이 마음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지과학의 개념 분석을 위해 감정과 느낌을 Damasio(1999)의 신경과학적 접근으로 분류하고 행동에 의한 감정발달단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용수의 내적 경험을 Norris(2005)의 감정발달 단계와 연합하여 탐구하고 이를 통하여 무용수의 자연적이고 근원적 관점인 내적 인지를 무용수의 움직임과 인지발달과정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II . 체화와 인지

1. 몸과 체화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연구되어지는 양적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주가 그것의 필요성과 그 범주에 속해있는 그룹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특질의 구체적인 명시가 된 충분한 조건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러한 학술연구에서는 논리적, 일반적, 객관적인 정당성이 요구되어지는데 최근 인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Parvianen(2002)에 의하면 전통적 객관주의자 요구에 맞는 과학적이고 일반적인 정답이 없음이 주장 되었고 특히 인간의 경험적 지식의 객관적인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음이 논증되어 연구논문에 대한 객관적 합리성에 대한 규준은 정답보다는 연구자의 목적에 맞는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인간의 이해의 창의적 구조를 포함하는 한에 있어 전통적인 연구와 다른 방법을 택하기 시작하였다. Parvianen(2002:34)은 객관적인 논증이 어려운 “인간의 몸의 본질, 인간의 지각, 감정, 운동감각적 기술에 관한 연구는 창의적으로 구성된 인지모델을 바탕으로 연구” 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객관론의 비판은 영국과 미국의 분석철학에서도 보여진다고 Johnson(1987:175)은 “인간의 체화, 문화적 환경, 상상적 이해,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전통을 넘어서는 시각이 객관성을 보장한다는 잘못된 가정이 분석철학에 존재한다면서 인간의 지식에 대한 비객관론적 통찰”을 제시하였다. 그는 인간의 지식은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계속적인 해석을 통한 활동의 결과이며 이러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체화의 기반에 뿌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능력 자체는 그가 속해 있는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 등의 환경적 배경과의 합의에 의해 체험되고 그의 고유한 해석에 따라 비로소 이 세계를 이해하고 만들어 나간다고 주장한다. F. Varela(2013:241) 또한 인지론, 창발론, 그리고 마음이라는 사회의 다양한 인지실재론의 배후에 존재하는 암묵적인 가정은 세계는 불연속적인 요소와 기능의 영역들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고 인지는 세계의 모든 문제해결 능력이므로 이러한 요소와 연관성이 올바르게 파악되어야 한다고 논쟁한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몸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연적이고 생리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행위라도 특정 문화의 일정한 문화적 패턴으로 표출되어진다. 이는 즉 인간은 몸으로 삶을 영위하고 사회를 만들며 그 의미를 체현한다는 의미이다. 모든 인간은 몸이 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몸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정신이 만들어 진다. Johnson(1987)은 서양 철학에서 배

제하고 있는 몸을 마음 안으로 돌려놓는 논의를 시도하여 몸은 마음속에 있고 마음은 몸 속에 있으며 몸과 마음은 세계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연구자의 전체적 논의에 상관없이 인지과학 그리고 사회과학에서는 몸과 마음의 통합이 최근 연구의 트렌드인데 Damasio(1999:145) 또한 인간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든지에 관계없이 인간은 몸에 의해서 공간과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이 인간의 완전한 자연적 활동이라 논의하기에는 인간은 타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으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M. Foucault(1975)는 『Discipline and Punish』에서 근대적 문명에서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이 사회적 규범과 훈육 등에 의해서라며 나아가 인간의 몸이 어떻게 규율화 되어 지는지에 대한 탐구를 보여준다. 그는 인간이 근대의 사회적 조직인 학교, 군대, 감옥, 병원 등이 통일된 기준과 일정표를 제시하며 인간 몸의 공간적, 시간적 사용을 할 일과 하지 않을 일로 제한한다. 반복적인 규칙과 교육을 통해 학교의 어린이는 학생으로써, 군대에서 군인은 군인으로써의 행동이 몸에 익숙해지고 이를 통해 규율화 된 주체가 되며 이러한 규정된 행동양식은 몸에 각인되어 몸을 통해 실행된다. 즉 몸에 서서히 누적되어 체화 되며 비로소 몸을 통해 주체가 형성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갓난아이일 때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공급되도록 이미 준비되어있는 환경(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등)의 카테고리들 통해 세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끊임없이 배워오고 있다. 시간, 공간, 종교 등에 관한 인간의 감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 각종 기관들에 의해 조정되어져서 나오는 것이다. V. Turner(1983:223)는 이러한 규정된 문화들이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 발달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어찌되었던 인간은 부모님, 선생님, 존경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등 어떠한 태도로 대해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느끼고 생각하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물체는 그들 한명 혹은 하나만 동떨어져 인지 되는게 아니라 그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사건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인간의 판단력과 도덕성을 설립하게 한다. 그리고 이렇게 설립된 판단력이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인간이 자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자연적인 것이 아닐 때가 많다. 이들은 모두 사회화, 설득화, 교육화, 그리고 훈련화 등을 통한 과정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Damasio(2003)에 의하면 일찍이 17세기부터 이러한 Descartes의 이원론적 존재론에 반한 논의가 B. Spinoza에 의해 생겨났고 이런 몸에 대한 강조와 함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는 M. Ponty의 인간은 몸을 통하여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시각이 세계는 나의 지각환경이며 마음은 ‘신체를 통해 체현’ 된다는 관점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또한 몸은 이러한 수많은 변화

에 따라 발전, 확장되어지며 우리의 몸의 완벽함의 이미지는 우리자신 혹은 우리 자신보다 높은 존재를 의미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존재로 즉 체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과 인지는 그의 뇌에 언어와 같은 명제의 형태로 완성된 형태로 설립되어 이를 표상하는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해가는 환경과 함께 내재되어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몸의 행동’을 통해 비로소 존재하고 이를 강조 하는게 체화된 인지 접근 방법이다.

2. 체화된 인지

인지과학의 초기에는 뇌가 정보기능을 처리한다고 여겨져 몸의 역할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몸과 뇌의 상관관계의 의문점을 제기하고 “몸의 감각이나 행동이 마음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신체화된 인지 이론”(Varela, 2013:9)이 등장하였다. 체화된 인지는 이전의 패러다임들이 몸과 환경을 무시하고 Descartes식의 마음이 곧 뇌신경과정의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생겨난 접근방법으로 “마음은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경적 상태나 과정이라고 하기 보다는 신경적 기능구조인 뇌와, 뇌 이외의 몸, 그리고 환경의 3자가 괴리되지 않은 통합체(nexus) 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중심으로 재개념화” (알바노에, 이정모 재인용, 2009:13)함을 기본구조로 삼는다.

이 단락에서는 세계는 불연속적인 요소로 이루어져있고 이러한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인지는 미리 주어진 영역과 그 안의 요소들의 속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는 환경의 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다양한 인지론에 존재하는 가설을 통해 체화된 인지의 기본구조에서 환경과 행위 중심을 논의한다. Johnson(1987:12)에 의하면 인간의 표현에는 “신체적 외모와 신체적 힘”의 명제로 이루어진 둘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결합하는 두 가지의 신체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각각의 개념의 뜻을 서로 다른 개념이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에 의하여 설명되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의미들은 “경험의 선 개념적 구조에 기초”(Johnson, 1987:12)를 두고 있어서 ‘신체적 힘’의 의미는 “우리의 몸의 경험의 힘으로부터 생겨나는 대중적으로 공유하는 의미의 구조”(Johnson, 1987:13)에 의존한다. 즉 그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난 그 날, 심지어 태어나기 전부터 이러한 신체적 힘의 의미를 부여받는데 우리의 몸은 몸의 발전하는 과정에 의거하여 이힘과 또 다른 신체적 물체의 강요에 의해 행동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어떠한 외부의 힘과 처음으로 마주치면서 구성되고 이는 우리자신과 우리의 환경 사이의 순환하는 양식화된 관계를 드러내

어 준다. 즉 인간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힘의 중심에 있는 물체를 다루며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인간은 상호작용을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함께 더불어 효과적으로 그 양식을 발전시킨다.

의미는 체화된 의미와 우리의 감성의 선개념적 구조를 (예를 들면, 우리의 지각의 유형, 우리자신의 지향, 그리고 다른 물체, 사건 혹은 인간과의 상호작용) 포함한다. 이러한 체화된 패턴은 개인적으로 혹은 그것을 경험하는 당사자에게만 사적으로 남아있지 않는다.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러한 많은 패턴을 해석하고 성문화하도록 돕는다. 이것들이 경험의 공유된 문화적 유형이 되고 우리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의미 있는 본성의 일관성을 결정하도록 도와준다 (Johnson, 1987:14).

이와 비슷하게 Varela(2013) 또한 색을 인지하는 것이 인지과학의 소우주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닭과 알의 입장을 예로 정리 한다. 닭의 입장은:

밖에 존재하는 세계는 미리 주어진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속성들은 인지체계에 던져질 이미지보다 먼저 존재한다. 이때 인지 체계의 역할은 이런 외부세계의 속성을 적절히 (기호를 통하든 하위기호단계의 종합적 상태들을 통하든) 재현하는 것이다(Varela, 2013:278).

이렇게 주장하는 연구에 유일하게 대안할 수 있는 주장이 “인지체계는 그 자신의 세계를 투사한다. 이 세계의 명백한 실재는 이 체계의 내적 범칙의 단순한 반영일 뿐이다”(Varela, 2013:278)라는 알의 입장이다. Varela는 색의 논의가 이 둘의 사이의 극단적 경계선에서 그 중도를 보여준다고 주장하면서 “객관론적 견해와는 달리 색 범주는 경험적이다. 주관적 견해와는 달리 색 범주는 우리가 공유하는 생물학적 문화적 세계에 속한다”(Varela, 2013:278)라 논의하면서 인지는 닭과 알 즉 세계와 그것을 지각하려는 자가 서로 보완하여 규정함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러므로 인지는 미리 주어진 외부세계만 보고 그 자체의 재현으로 인지(실재론)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선개념적 의미에서 미리 주어진 내적 세계로의 투사로 인지(관념론)하는 것도 아닌 마치 M. Polanyi(1966)의 지식의 개념처럼 초점적 지식(focal knoweldge)과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이 서로 왔다갔다 교류하면서 비로소 지식이 내장되는 것처럼 이 둘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중도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즉, 인간은 그의 주변의 모든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이에 순응하고 살기도 하지만 또한 이러한 순응된 행동들에 의해 세계에 영향을 주므로 이러한 상

호작용들을 통해 우리는 세계가 인간을 구성하고 또한 인간이 세계를 구성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Varela(2013)의 이론의 경우 첫 번째 표상은 외부에 존재하는 것을 재현하고 두 번째 표상은 내부의 것을 투사하는 것에 사용이 되는데 이를 어떻게 체화된 행동으로 인지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이 어떠한 것을 A라고 규정하는 데는 “1) 지각은 지각을 통하여 인도되는 행동으로 구성되며 2)인지구조는 주어진 행동이 지각을 통해 인도되도록 하는 반복되는 감각운동의 패턴으로 창출된다”(Varela, 2013:280)라는 두 가지 사항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접근에서 보면 지각은 주어진 환경이 끊임 없이 변해가는 과정에서 독립된 형태로 설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각자의 감각운동구조(신경체계가 감각과 운동을 연결하는 방식)”(Varela, 2013:280)인 것이다. 즉 지각은 이미 존재하는 미리 주어진 속성을 재현하는게 아니라 “지각 의존적인 세계에서 행동이 지각을 통해 인도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감각체계와 운동체계 사이의 법칙적 연결 또는 공통의 원칙을 결정하는 것이다”(Varela, 2013:280). 체화된 인지는 “인간의 마음, 인지가, 개인 내의 뇌 속에 (고전적 인지주의가 주장하듯이) 언어적 명제 형태로 표상된 내용이라고 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몸을 가지고(embodied) 환경에 구현, 내제되어(embedded) 사회환경에 적응하는 유기체가 환경과의 순간적 상호작용(interaction) 행위 역동(dynamics) 상에서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마음, 즉 유기체의 몸과 문화, 역사, 사회의 맥락에 의해 구성되고 결정”(이정모, 2009:13)되는 행동을 중시하는 접근 방법을 내포한다. 따라서 다음 단락에서는 행동과 연루된 내적 인지를 분석한다.

III. 감정과 느낌

1. 감정과 느낌의 관계 구조

Damasio(1999)는 인간은 몸, 뇌, 그리고 마음 이 세부분의 유기적 조직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한 부분인 뇌는 몸 전체를 모니터하고 균형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데 몸 안에 존재하며 마음은 뇌의 한 부분이라 논의한다. 동물의 역사에서 보면 몸은 첫 번째로 발전되고 그런 후 뇌가 더욱 복잡해진다. 마지막 발전에는 아마도 오직 인간만 있을 것이며 심지어 뇌의 더 복잡한 부분인 Damasio가 논의하는 마음(mind)이 있다. 그는 저서 『The

Feeling of What Happens」(1999)에서 느낌과 감정의 다른점을 논의하면서 감정과 느낌이 얼마나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신경과학에서 감정은 다소 복잡한 반응으로 몸에 어떠한 특정한 자극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가 몸에 특별한 자극 없이도 어떤 것을 본 후 공포를 느끼면 우리의 심장박동은 빨라지고 머리털이 곤두서고 근육이 긴장될 것이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신체에 어떠한 자극이 있어 반응하기 보다는 두려움에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은 몸에 자극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정을 인간은 어떻게 아는 것인가. 이에 Damasio(1999:279)는 감정은 점진적 발전 기간을 통해 개인의 내적 느낌의 감각이 있을 때까지 감정을 구성하는 잘 조직되어진 어떤 반응이 존재하는데, 이 존재가 생성된 후 느낌을 구성하는 뇌의 어떠한 표상이 있음을 보장되면 감정이 유기적 조직체에서 이를 어떤 사건으로 감지를 하고 오직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을 아는 것이 감정이라 답한다. 또한, 어떠한 신체적 변화에 대해 뇌에서 지각이 이루어 질 때 생성되며 오직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예를 들면 두려움의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며 느낌은 감정에 의해 형성된다 한다. 그에 따르면 뇌는 끊임없이 몸으로부터 신호를 받으며 우리의 내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재한다. 그 후 이 과정은 신경의 지도를 그리고 느낌은 이러한 지도가 읽혀질 때 생성되며 이 과정 후 비로소 감정적 변화가 명백하게 기록되어 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감정을 몸의 상태 - 심장박동이 오르고 근육이 긴장되는 등의 - 로써 그리고 느낌은 유기체가 감정을 느끼는 것을 아는 것(Damasio, 1999:81)이라고 감정과 느낌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고 이와 비슷하게 LeDoux도 느낌을 “감정 의식”(2002:206) 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감정과 느낌을 각각 심층 분석해 보자면 감정은 어떠한 정황의 두 가지 형태 중 하나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첫 번째 정황은 유기체가 특정한 물체 혹은 상황이 그것의 감각의 장치와 함께 일어날 때 즉 예를 들면 유기체가 친숙한 얼굴 혹은 장소를 보았을 때와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 두 번째 형태의 정황은 유기체의 마음이 특정한 물체 혹은 장소에 대한 기억으로 부터 그려내고 그들을 생각 과정에서 이미지로 묘사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친구의 얼굴을 기억해 내고 그녀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는 것이다 (Damasio, 1999:56). 이러한 감정은 유기체의 일상생활의 경험과 함께 발전되어지고 일상의 거의 모든 물체와 상황과 상태의 힘에 의한 항상성 규정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로 만들어 지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다(Damasio, 1999:63). 감정이라는 단어를 이야기 할 때는 소위 ‘주된’, 혹은 ‘보편적인’ 행복, 슬픔, 두려움, 화남, 놀람, 그리고 역겨움의 여섯 개의 감정을 이야기 하지만 사실 인간에게는 감정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행동들이 존재한다. 이는 소위 ‘두 번째’ 혹은 ‘사회적 감정’이라고 일컬어지며 쑥스러움, 질투, 죄

책감, 혹은 자부심과 웰빙, 불안감, 침착함, 긴장 등 그가 지칭하는 배후감정을 포함한다 (Damasio, 1999:51). 어떠한 언어로 누군가에게 그의 기분에 관해 전해 듣지 않고 단지 그를 봄으로써 느끼면 우리는 배후 감정을 스스로 자동적으로 알아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무용스튜디오에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의 작은 행동과 얼굴 그리고 풍겨지는 어떤 센스로 선생님의 현재 감정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반대로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은 몸자세, 속도, 움직임의 윤곽 등 아주 미묘한 세부사항으로 - 눈 움직임의 속도나 최소한의 변화, 얼굴 근육의 축소의 정도와 같은 - 상대방의 배후감정을 알아낸다는 주장의 단편적 예가 된다. 이러한 배후감정의 유도인자는 대부분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것인데 Damasio(1999:52-53)는

내적 상태의 특정한 조건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신체적 과정에 의해 혹은 유기체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배후배경을 구성하는 원인이 되는 반응이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에게 긴장 혹은 휴식의 배후 느낌을, 피로 혹은 에너지의 느낌, 웰빙 혹은 불안의 느낌, 예측 혹은 두려움의 느낌을 가지게 한다. ... 비록 배후감정이 명백한 얼굴표정의 구분된 목록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주요 감정 혹은 사회적 감정과는 쉽게 구분이 된다. 배후감정 또한 미묘한 몸 자세와 전반적인 몸의 움직임 같은 근골격의 변화가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내적 구성요소인 감정은 내적으로 뇌와 연결되어 신경의 지도를 만들어 패턴화 하여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미묘한 얼굴의 표정이나 몸의 자세 등을 통해 외부로도 표출되고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을 논의 할 때는 반드시 몸의 지능을 언급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감정은 몸과 마음의 사이를 이으며 “느낌은 획득된 지식을 이해로 변환시키는 촉매제이다. 그것은 몸과 우리가 부르는 마음 사이의 중재인 역할”(Norris, 2002:113)을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느낌을 논의하자면, 느낌은 뇌의 어떤 영역의 활성화 결과 ‘감지’로써 논의되고 “신경 패턴의 제공된 결과적 수집품이 ‘마음 안’의 이미지가 되는 것을 제공한다”(Damasio, 1999:79). 감각, 감정, 생각의 의미로 사용되는 이러한 ‘느낌’은 심리적이고 동시에 신체적이며 혹은 둘 다 입을 의미한다. 감정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문화, 모든 관점의 교육수준의 사람 등 모든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병이 있지 않는 한 인간은 타인의 감정에 유념하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많은 감정 중에서 불유쾌한 감정은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려 노력하며 행복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간다. 인간의 모든 충동은 이러한 감정으로부터 야기 되는데 정제되었든지, 정제되지 않았든지, 그리고 미묘

하든지, 미묘하지 않든지 이러한 모든 감정의 느낌에 의존하여 발생되어진(Damasio, 1999:36)다. 이것은 마음속만 아는 사적인 느낌을 통해서, 그리고 표면상으로 직접 혹은 공개된 감정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즉, 느낌은 감정을 가질 때 인체의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감정의 다음 순서로 일어나는데 이런 이유로 정의내리기 어렵고 모호한 감정은 너무나 주관적이라서 과학의 실험실에서는 신임을 하지 않지만 감정은 근거와 이성의 반대에 존재하는 것으로 최고의 인간 능력으로 근거와 이성 전적으로 감정으로부터 독립되어 진 것으로 추정된다(Damasio, 1999:38). 감정은 몸에 배치되고 이성과 근거는 뇌에 배치된다. 21세기 과학은 몸을 생략하고 감정을 뇌로 옮겨 연구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인간의 뇌의 발달 과정은 심장과도 연결되어 있고 인간의 몸과 함께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진다(Pearce, 2002)고 하여 인간의 몸과 행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Norris(2012) 또한 인간의 몸이 의식적 깨달음과 지식을 소통하기 때문에 감정을 이야기 할 때는 반드시 몸의 지식의 논의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한다. 로봇에게 인간의 움직임은 지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을 것이고 로봇은 전통적인 인식론에 따르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건 인간의 움직임은 단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기술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누적된 내적 인지가 인간의 고급 능력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체화된 내적인지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몸과 행동에 대한 감정의 발달단계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2. 몸과 행동을 통한 감정의 단계

인간은 뇌와 몸의 미스터리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한 단계로 몸에 대한 지식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제한된 이해력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정의내릴 수 없는 인간 존재의 특질에 관한 가설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식, 사랑, 동정, 감정을 자극하는 미적 특질, 볼 수 없거나 몸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감각의 신념 등 논의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이러한 것들은 Norris(2012)가 논의한 바와 같이 과학 뿐 만 아니라 철학, 심리학, 인류학 그리고 신학 등이 인간의 염원 중에서 가장 영문을 알 수 없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의미를 찾기 위한 필요와 욕구의 설명과 해설을 받아들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종교의 연구에서는 인간의 종교적 초월의 경험은 주로 몸의 상태로 객관적으로 약속되어진 언어로 표현될 수 없으며 단순히 생각과 읽기 등에 의해 습득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의미, 신념, 종교의식, 윤리,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이 모두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LeDoux, 2002)고 하여 몸과의 관계의 분석에 집중한다. 예를 들면,

로마시대 카톨릭 신자들의 영혼은 몸의 고통을 통해 배워진다는 신념을 토대로 영혼과 몸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실질과 서로 감지할 수 있는 영향을 준다고 하며(Norris, 2005:185) 영혼은 몸을 통하여 중재되어 지는 것이라 한다.

Norris(2002)에 의하면 인간의 자세나 행동이 주어진 문화 안에서 대부분 어린시절에 따라하기를 통해 배워지는 것처럼 감정과 느낌도 배워진다고 한다. 그가 속해있는 환경에서 아이들은 그들의 행동과 언어 그리고 감정을 모방한다. 그렇다면 묘사되어 질 수 없는 비언어적, 비논리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기독교인의 기도나 불교인의 명상과 같은 상태는 어떻게 배워지는 것일까? Norris(2005)는 우리가 종교를 배울 때 우리는 성경과 같은 문자로 배우기도 하지만 또한 문화와 몸으로의 배움을 통해 체화된 경험과 신념을 공부한다고 한다. 그녀는 한 인간에게 종교적 믿음이 생겨나면 인지 능력이 그것을 가늠하고 계속 진행 중인 경험의 부분으로 감정을 통합한다고 한다. 나아가 이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트랜스의 상태가 되는 것은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과는 다르게 그것을 인지하므로 무경험자와는 달리 그 상태로 가는 단계의 인식과 표준을 가질 것이다. A. Marshall(2003:10)도 이와 마찬가지로 종교의 경쟁적 영역에서의 경험의 통제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종교적 황홀경(ecstatic)은 무의식의 상태가 아니라 어떤 알려지지 않은 힘이나 물리력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며 “이러한 황홀경은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 자신이 그 경험을 규정하고 순수성과 도덕성을 함양하는 그만의 독특한 경험의 협상”(2003:10)이라고 언급한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그 상태로 가는 그 자신만의 고유한 단계와 표준을 가진 협상이 초월의 특질을 결정하며 이러한 종교적 황홀경의 경험은 장기적인 신 혹은 절대적 존재와 통합의 감각을 느끼는 계기를 시도한 영혼적 여정이며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사회, 역사, 문화적으로 인정되어진 특정 움직임과 자세와 함께 확장되면서 오랜 수행으로 협상되어진다는 것이다. Norris(2005:186)는 또한 굉장히 개인적이며 사적이고 문화화된 경험과 기억을 가지는 종교적 상태의 과정 단계를 분류하였다. 종교적 상태의 발전을 경험적인 몸에 토대로 두어 진행되는 연구는 종교적 발전에서 필수로 따라오는 어떤 특정한 감정적 과정의 특질을 논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태의 과정은 1)종교를 통한 과정 혹은 기억을 상기시키는 어떠한 감정이 2)현재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느껴지는 것’이라 주장한다. 왜냐하면 감정적 과정의 특징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더 발전되고 교육되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역사를 통해 전통적으로 종교가 감정의 능력을 사용함이 증명되었다고 한다(Norris, 2005:182). Norris(2005:182)는 감정의 발달단계를 종교적 경험으로 분석을 하였으나 이는 꼭 종교에만 국한 되는게 아니고 종교적 감정은 감정적 경험의 부분집합일 뿐이라고 한다.

Norris의 몸의 감정적 발달단계를 심층 분석해 보면 첫 번째로 기도를 수행하는 자의 몸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초월의 상태는 논리적, 언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명백하게 쓰여진 언어적 인지의 도움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므로 언어적 인지의 도움 - 예를 들면 성경을 공부한다는 등의 - 과 함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몸의 특정 자세를 취하며 영혼적 순수함을 찾는 행동을 반복한다. Norris(2012)는 종교적 상태의 지식은 특별한 특질의 지각과 기억이 필수불가결하게 따라오는 어떠한 과정으로 몸을 통해 배워지고 전송되어진다고 한다. 더하여 이러한 유동적인 경험된 몸은 문화, 사회, 종교적 전통,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다양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누적되어진 체화된 경험이 결국 인간 개개인의 구분되어지는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몸은 그것 자체를 영혼적 전통에 의한 종교적 관념을 소중히 여기는 관계와 규칙에 순응하며 이에 따른 몸을 형태 짓게 하는데 집중을 하여야 한다”(Levin, 1985:200). 또한 인도적 전통에서 철학은 명상과 같은 지식을 얻는 특별한 수련방법이 존재하고 전통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명상법과 그 자세는 서로 상호연관되어 그를 행하는 주체의 ‘집중’을 통하여 지식을 획득해 내는 것이다. Varela는 집중이란 “마음이 체화된 경험변형에 항상 현전하고 있는 것이다. 집중은 마음을 이론과 관심에서, 즉 추상적인 태도에서부터 이끌어내 경험 그 자체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한다”(2013:60)고 주장한다. 신체적인 움직임과 함께 모방을 통해 한번 배워진 감정은 종종 기계적으로 다시 불러 일으켜지거나 특정한 감정이 자동적으로 따라서 오게끔 되므로 오늘 기도할 때의 그의 ‘집중’된 감정은 자동적으로 내일 불러 일으켜 지는 것이다. “기억, 이미지, 기대감은 하나의 감정 혹은 또 다른 감정과 습득되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복제되는 것처럼 연상되어 있지만 습관과 비슷하게 되어 지며 그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이 시작 될 때 자동적으로 수반”(Norris, 2002:113)되어 진다. 즉 집중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특정 자세는 이러한 감정의 환기로 인해 “정확한 자세로 앉았을 때의 마음의 상태 그것 자체가 깨우침”(Norris, 2005:185)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또한 Damasio(1999:218)는 감정을 다시 경험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감정이 되돌아오는 것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지의 근원으로 생화학적(체액)과 전기화학(신경)의 과정을 설명한다. 만약 주어진 조건들이 특정한 반응을 다시 떠올려줄 수 있다면 다른 조건들이 또다시 발생하고 이것들이 똑같은 생화학적 그리고 전기화학적 반응을 떠올려 줄 것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같은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뉴런(신경세포)이 환경과 서로 같이 조율을 하여 장기적 승상작용을 하므로 반복 또한 감정을 더 쉽게 떠올리고 불러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Damasio, 1999:219).

두 번째 발달과정은 ‘다시 느껴지는 것’으로 어제 감정을 불러 일으켜 오늘 다시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기 되어진 감정이 현재 다시 느껴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과 함께 현재의 감정이 더해져 감정의 확대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통과 같은 감각의 기억은 그것이 기억되어지는 것처럼 실지로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은 경험되어 지는 것이다. 비슷하게 기쁜 감각은 기억되어지지만 다시 경험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이가 공공의 장소에서 민망한 일을 있었던 그 시간을 그 장소에서 기억한다면 그가 그것을 다시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당장 몸이 움츠러질 것이다. 만약 길을 걷다가 첫사랑과 헤어진 다음 들었던 노래를 갑자기 듣게 된다면 심지어 삼십년이 지났어도 그때의 힘들었던 느낌들을 다시 불러 일으켜질 것이다. 그런데 이때, 만약 그 노래를 삼십년 만에 처음 들어서 상기되는 사람의 감정과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삼십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를 생각하고 노래를 들은 사람이 우연히 또 길거리에서 들었을 때의 감정의 발달 수준과 크기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어떤 그 특별한 감정을 매순간 그들이 원래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똑같은 환경에 있을 때에 다시 경험하게 되는데 이 감정의 구조가 다시 불러일으키고, 다시 느끼는 것이며 이는 그 전의 느낌을 더 발전시키게 해 준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훈육과 훈련을 통하여 제련할 수 있고 세련되게 경작할 수도 있으며 그래서 경험의 단계적 차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체화된 인지에서 설명되었듯이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환경에 순응하는 몸의 감각이나 행동이 마음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사람이 항상 하던 대로 그의 특정 자세를 취하면 자동적으로 누적된 감정이 불러 일으켜지고 또한 현재의 감정과 함께 확장된 감정을 가진다.

마지막으로는 ‘발전’단계로 앞선 모든 단계를 계속해서 장기간 거쳐나가 이러한 ‘다시 느끼는 것’의 감정의 함양 혹은 발전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감정과 그것을 다시 떠오르게 환기시켜주는 자극시키는 방법은 사회, 문화적으로 다르지만 자동적으로 자연발생적인 이러한 ‘과정’은 모든이에게 똑같이 보편적이다. 종교적 전통은 어떠한 양질과 발전하는 종교적 경험으로 향한 느낌을 교육하기 위해 성상과 종교적 자세, 제스처 그리고 의식행위의 반복을 통하여 이러한 ‘과정’을 사용하였다. 신경과학은 감정의 신경과학적 과정이 경험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감정이 떠올려 지며, 다시 느끼고 발전될 때 열리는 감정적 과정의 이해를 돕는데 공헌하였다.

IV. 무용수의 체화적 인지

1. 무용수의 내적 경험의 의미

무용수는 무용을 처음 배울 때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모방을 한 후 스스로 자신의 에너지, 균형, 축 등을 찾아가고 이는 전적으로 무용수의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용수, 안무자, 무용을 연구하는 학자 등 무용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용의 내적 경험에 대해 논의한다. Fraleigh(1987)은 무용은 무용수가 “목적에 맞게 움직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한 부분”이라고 여기서 목적은 그에 알맞은 리듬, 캐릭터, 움직임의 테크닉적 기준 등을 의미하고 어떤 일은 Fraleigh의 용어로는 초월이라고 일컫는다. 그녀는 무용수가 초월의 상태로 가는 데는 어떠한 내적 힘을 이야기 하고 이를 “탁월한 자아(surpassing pass)”(Fraleigh, 1987:87)이라 정의하고 무용수 자아의 한 단계 높은 수준에 혹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어떤 내적 경험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Gil(2006)은 무용수가 무용을 할 때 일어나는 내적 경험을 공간과 함께 논의하는데 무용수는 무용을 할 때 객관적 공간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내고 발전시키는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특별한 공간과 무용수 사이의 틈이 없어지면서 그 공간이 바로 무용수의 피부가 되는 것같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는 무용수는 “공간안에서 무용을 하는게 아니라 공간을 그의 움직임으로 만들어 내면서”(Gil, 2006:21) 무용을 하며 이 “공간과 무용수가 하나됨”(Gil, 2006:28)을 느끼는 것이 바로 무용수의 내적 인지 경험이라 한다. 또한 Beardsly(1982)는 그의 저널 “What is Going on in a Dance” 에서 무용을 할 때 무용수에게 무슨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무용수의 내적 경험을 분석한다. 그는 무용을 움직임, 동작의 연속된 사건들 그리고 특별한 “계속되어짐(going on)” (Beardsley, 1982:31)으로 이야기 하면서 단순히 동작들에 의해서 무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동작이 움직임으로 변환될 수 있는 필수요소가 리듬과 표현이라고 하면서 무용은 “연습할 때 보여지는 것보다 더 열정적이고, 활기가 있으며, 능수능란하고, 광대하며, 위엄이 있다. 여기에는 표현의 흘러 넘치거나 과잉이 있으며 이것이 무용의 고유한 영역에 속한다”(Beardsley, 1982:31). 그는 무용수가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느껴지는 그들 각각의 언어로 표현하거나 정의내리기 힘든 어떤 특별한 내적감정을 그려내었고 이를 어떠한 한가지 동작이나 움직임이 아닌 계속되는 어떤 연속된 사건으로 보고 그 동안의 무용수의 확장된 내적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모두 무용수의 내적 인지에 대해 논의하

였는데 이러한 몸의 지식과 감정에 대한 연구는 객관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도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기도 어려운 논제이다. 이들은 모두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논지를 펼치고 있으나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무용수의 내적 인지와 몸의 지능에 대한 것이다. 이들의 논지를 통해 무용수의 체화된 몸의 의식과 감정을 규명해 볼 수 있다.

2. 무용수의 몸과 움직임의 느낌

체화된 앎은 생각이나 사상이 몸과 상호작용하거나 혹은 완전한 인간의 네트워크 힘의 통합을 포함하는 전체론적인 경험(Block and Kissell, 2001:6)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합된 네트워크 힘은 단순히 뇌에서만 이루어 지는게 아니라 중립적인 요소, 노력, 기억, 언어, 지각, 감정 조절 등이 통합되어져 만들어져 인간의 몸을 통해서 발견된다. 무용과 종교 모든 것을 떠나서 거시적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삶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체화라는 개념은 완전히 전적으로 인간의 개념인 것이다. “체화(being embodied)되는 것은 깊숙이 박히다(being embedded)라는 의미 또한 포함하고 이는 즉 사회, 문화, 언어 등 그가 살고 있는 주위환경 모두가 깊숙이 내제”(Block and Kissell, 2001:8)되는 것을 의미한다. 체화가 Descartes의 이원론인 몸과 마음의 양극성에 대한 논박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러한 논박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는데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단순히 한 인간으로써 체화가 이루어 지지 않고 그가 속해있는 문화, 언어 그리고 예술 모두를 포함하며 인간이라는 것은 물질, 신체, 운동감각, 공간, 시간 등과 필수적으로 관계하여 수반된 의미와 상징의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용수의 체화를 논의할 때는 무용수의 외적 경험인 움직임 체험과 더불어 무용을 배우는, 무용을 하고 있는 그 과정과 함께 그의 문화적, 교육적 등 모든 환경의 요소, 즉 전체 인간으로써 살아있는 경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간의 몸은 불변의 구조가 아니라 특별한 발전을 피하는 능력이 있는데 특히 무용수의 경우 일상생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자세나 움직임을 긴 시간 동안 반복 연습을 통해 습득해 나간다.

앞서 논의 되었듯이 느낌은 행동과 움직임, 특정 자세의 사용을 통하여 표현되어지는 데 종교적인 자세는 수행하는자의 몸에 문법의 한 부분이 되어질 수 있는 긴 시간을 통한 역사와 문화적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무용수도 장르에 따른 일반적이지 않은 특정한 움직임의 자세와 스타일을 습득한다. 장르를 막론하고 무용수는 그 특정한 자세와 움직임을 습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대부분의 무용수는 처음 무용을 시작할 때 무용의 객관적인 규칙에 적합하도록 연습하고 이러한 노력으로 획득된 무용수의

특정 상태를 Barbar(1991)는 물개인화 (depersonalisation)라고 지칭하면서 움직임의 체화 초기 과정은 반복된 연습을 통해 원래 있었던 자신의 몸의 문법에서 무용의 특정 테크닉에 맞게 몸이 조절되며 습득되어진다고 한다. 외적 자세와 내적 상태는 배워지는 것이고 서로 따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관련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무용의 테크닉 습득을 위한 반복된 연습은 외적 자세 뿐 만 아니라 내적 상태가 자연스럽게 같이 배워지는, 종교적 영적 상태의 근원을 찾는 경험의 근원을 고심하여 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며 이러한 움직임의 반복연습이 궁극적으로 내적 경험의 직접적 지각이 가능한 몸의 능력의 느낌이라 할 수 있다. 어쩌면 종교적 태도와 무용의 기능은 그들 고유의 특별한 의미를 운반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몸은 직접적 이해가 가능한 능력이 있고 마치 예배의 의식절차와 같이 무용의 행동과 자세에도 그것들의 주위의 모든 환경이 누적되어 경험의 관점의 존재로써 비로소 몸의 형태가 구조되기 때문이다. 또한, 무용수에게는 행동을 무용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이 습득해야 할 미리 규정된 자세, 태도와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교적 의식화 단계에서 성경과 같은 언어의 원문의 의미가 제공되어지는 영혼의 발전을 위한 정밀한 도식화로써 읽혀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종교에서 영혼이 충족된 인간의 몸은 그 몸의 이해의 고유한 표현 방법과 양식에 따라 해석되어지므로 미리 규정되어져 있는 종교적 의식이 반복되면서 점점 보다 확장된 기술과 영적 우아함이 함께 수행되는 것처럼 무용에서는 가시적이고 읽기 쉬운 테크닉적 문맥, 몸의 근육의 움직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끊임없는 반복연습을 통해 물개인화 되어 몸에 거주하게 된 후 비로소 점차적으로 확장된 기술과 함께 내적 경험을 직접적으로 지각하고 그에 따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무용수의 내부의 경험은 구체적인 방법의 외부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감정은 몸을 통해 느껴지며 느낌은 특별한 감각지각으로 느껴지는데 무용수는 점차적으로 이러한 외부 현상과 내부경험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지고 외부의 세계가 내부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또 이를 지각하는 능력이 생기면 이러한 내부와 외부사이의 구분의 점차적으로 불분명해진다. 또한 감각의 느낌 - 청각, 시각뿐만 아니라 운동지각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 자체를 보여주고 몸의 표현의 수용과 변화를 통해 놀랍게 확장하여 생산하거나 줄일 수 있다”(Tugwell, 1974:27). 비슷하게 무용수가 무용에서 취하는 자세 혹은 움직임은 그들의 느껴지는 상태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무용수가 무용의 움직임을 통해서 느껴지는 경험은 몸의 직접적인 경험이며 완벽한 언어적 통역이나 설명이 꼭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무용의 경험

이 몸의 경험이라는 게 자명해 보이지만 외적 움직임 뿐만 아니라 특정 움직임에 대한 반복된 연습에 의해 몸으로 느끼는 무용수의 감정과 이것에 대한 느낌의 증폭과 같은 내부 경험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질적, 신체적, 운동적, 정신적, 공간적 그리고 시간적 요소와 관련이 있는 수많은 상징화와 의미의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수반한다. 무용수는 무용을 배우면서 기존의 몸의 지능과 함께 운동감각적 센스를 확장시키고 이러한 요소를 함유한 세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여 절충과 변형을 반복하여 생겨난 확장된 몸의 내적인지를 통하여 세계를 조율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인간의 마음과 인지는 그의 고유의 뇌에 언어와 같은 명제 형태의 완성작품으로 설립되어져 이를 표상하는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해가는 환경에 내제되어 사회와 적응하는 유기체와 상호작용하는 행동에 의해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이 세계를 구성하고 이끔과 동시에 세계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며 인지과학에서는 이러한 체화된 인지를 통해 몸의 외적 움직임이 내적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즉 몸과 마음은 통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로 이루어진 유기체라는 점을 바탕으로 몸이 인간의 인지의 도구로 몸의 행동으로 인지가 발달된다는 가정 하에 무용수를 대상으로 그 인지과정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가진다.

첫째, 인간은 몸으로 삶을 영위하며 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각의 도구이다. 지각은 이미 존재하는 속성을 재현 하는게 아니라 행동을 통한 감각체계와 운동체계 사이의 어떠한 공통의 원칙으로 결정되어져 느껴지는 것으로 인간이 인지를 한다는 것은 몸이 유동적인 환경에 끊임없이 조율할 뿐만 아니라 조율되어지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되어진 행동이 지각을 통해 인도 되도록 하는 지각구조를 가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몸은 환경과의 절충, 변형을 통해 적절한 움직임을 찾는 몸의 지능을 길러 줌이 논의되었고 이를 통해 세계가 인간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또한 인간이 세계를 구성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인간의 몸은 감정을 느끼고 이러한 느낌으로 정보를 인지한다. 감정은 몸의 상태로써 몸과 마음을 이으며, 느낌은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즉 획득된 지식을 이해로 변환 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지는 몸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이는 또한 몸

의 행동이 마음인지 과정에 영향을 끼침이 드러났다. 특정한 행동이나 자세에 의해 증폭, 확장 가능한 감정의 발달단계가 반복되어진 집중된 특정 행동에 의해 확대되어지며 이를 통하여 외적 행동과 내적 감정의 누적된 경험으로 향상된 몸의 감각이나 행동이 감정의 발전을 도우며 반복된 행동 학습이 몸과 마음의 통합된 발전 즉 인지의 발전의 도화선 역할을 함이 드러났다.

셋째, 인간의 몸은 직접적 이해가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무용수는 움직임의 외부 현상과 내부경험 사이의 경계가 반복된 연습과 감정의 누적된 증폭으로 인하여 내외부의 상호작용과 함께 점차적으로 불분명해진다. 즉 무용수는 반복된 외적 움직임이 몸에서 기억되고, 체화된 인지를 통하여 시간적, 물질적, 공간적, 신체적, 운동적, 정신적 모든 환경의 세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여 결국 몸과 마음의 통합적 확장된 내적 인지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무용을 배우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운동감각적 센스와 무용수 고유의 자동력을 존중하여 몸이 점차적으로 세심해짐을 의미한다. 인간의 인지가 뇌, 몸 그리고 환경의 통합체에서 행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무용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풍부한 삶과 표현의 체화를 경험하고 점유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단이자 예술 장르임을 추론해 낼 수 있다.

참고문헌

- 이정모(2010), “인지과학 패러다임의 새 변화가 학문간 융합에 주는 시사”,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제38호**, 27-66.
- Barba, E. and Savarese, N.(1991), *A Dictionary of Theatre Anthropology: The Secret Art of The Performance*, London:Routledge.
- Beardsley, M.C.(1982), “What Is Going on in a Dance?”, *Dance Research Journal*, 15 (1) 31-36.
- Block, B. and Kissell, J.L.(2001), “The Dance: Essence of Embodiment”, *Theoretical Medicine*, 22 5-15.
- Damasio, A.(1999), *The Feeling of What Happens: Body, Emotion and the Making of Consciousness*, London:Vintage.
- Damasio, A.(2003), *Looking for Spinoza: Joy, Sorrow and the Feeling Brain*, London:Vintage Books.
- Foucault, M.(1975), Sheridan, A. (Translated, 1995),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Prison*, New York:Vintage Books.
- Fraleigh, S.(1987), *Dance and the Lived Body: A Descriptive Aesthetics*, Pennsylvani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Gil, J.(2006), “Paradoxical Body”, *TDR: The Drama Review*, 50:4 (T192) 21-35.
- Johnson, M.(1987),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vin, D.M.(1985), *Recollecting of Being*, London, Boston, Melbourne, Henley:Routledge and Kegan Paul.
- Ledoux, J.(2002), *The Synaptic Self. How Our Brain Become Who We Are*, NewYork:Viking.
- Levin, D.(1985), *The Body's Recollection of Being*, London, Boston, Melbourne, Henley:Routledge and Kegan Paul.
- Marshall, A.(2003), “Negotiating Transcendence”, *Ethnologies*, 25 (1) 5-15.
- Norris, R.S.(2002), “Embodiment and Community”, *Western Folklore*, 60 (2-3) 111-124.
- _____(2005), “Examining the Structure and Role of Emotion: Contributions of Neurobiology to The Study of Embodied Religious Experience”, *Zygon*, 40 (1) 181-199.
- _____(2012), *Religion and the Body: Modern Science and the Construction of Religious Meaning*, Leiden:Boston:Brill.
- Parviainen, J.(2002), “Bodily Knowledge: Epistemological Reflections on Dance”, *Dance Research Journal*, 34 (1) 11-26.
- Pearce, J. C.(2004), *The Biology of Transcendence: A Blueprint of the Humans Spirit*, Rochester, Vermont: Park Street Press.
- Polyani, M. (1966), *The Tacit Dimension*, London:Routledge Kegan Paul.
- Tugwell, Simon.(1974), “Prayer in Practice”, *Springfield*, Templegate Punlishers.
- Turner, V.(1983), *Body, Brain, And Culture*, *Zygon*, 18 (3) 221-245.
- Varela, F., Thompson, E., Rosch, E.(2013), *The Embodied Mind*, 석봉래 (역, 2013), **몸의 인지과학**, 김영사.